

급식종사자 상시 근로에도 돌봄교실선 '도시락'

돌봄 급식 노사 이견... 올 여름방학도 도시락 가능성 급식실 인력·추가수당 놓고 도교육청-노조 협의 난항 도교육청 "노사 협의 이뤄지면 방학 중 돌봄 급식 가능"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학교 급식종사자의 '상시 근로'가 시행되고 있지만, 올 여름방학에도 초등학교 돌봄 현장에선 급식 대신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교육청은 사전에 노사 협의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조만간 '돌봄 급식'이 가능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입장 차가 워낙 큰 상황이라 최종 합의까지 갈 길이 멀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도내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자가 상시 근로로 전환됐다. 방학 중 임금 공백을 해소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이다. 올해부터 상시 근로에 들어간 급식종사자는 조리실무사, 조리사, 석식영양사 등 모두 855명(3월 1일 기준)으로, 지난 1~2월 겨울방학부터 방학 중에도 근무를 하며 임금을 받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일부 변화가 감지된다. 도교육청이 지난 겨울방학에 도내 초중고 표본학교 22곳(초등학교 1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8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 중 병설유치원 방과후 급식을 하는 초등학교 9곳은 급식종사자들의 협업을 급식이 준비됐다. 기존에는 조리사 1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고등학교는 조사 대상 중 절반가량만이 방학 중 방과후 과정 급식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방학 중 급식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았지만, 학교 급식종사자가 방학 중에도 일하게 되면서 그 금액이 30~4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하지만 도내 초등학교 돌봄 현장에선 여전히 급식 대신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는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 겨울방학에도 도내 모든 초등학교(111곳) 돌봄교실에선 위탁급식 업체가 만들어 배달한 도시락이 학생들의 점심으로 제공됐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시 근로 전환에 앞서 급식종사자 대표와 수차례 협

의를 벌였지만, '방학 중 초등 돌봄 급식' 시행에 대해선 결론을 짓지 못했다. 현재 급식종사자 노조 측은 '학생 80명 당 1명'으로 운영 중인 급식실 배치 인원을 대폭 완화하고 초등 돌봄 급식 시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순자 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은 "현재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학교장이 (방학 중 돌봄 급식을) 지시할 수는 있지만, 급식종사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장이 강제로 급식을 하기 위해선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한 뒤 학교에 안내하기 위해 정례적인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13일 금요일 음 1월 25일 (2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10%
20%	성산	20%
10%	고산	10%
1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구름많음	5/14℃
모레 ☀ 맑음	6/15℃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7℃, 낮 최고기온은 11-13℃로 예상된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으니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6:47	달뜨기 03:07
해질 18:40	달짐 12:43
물때 만조 07:43	간조 14:43
18:59	-:-
자외선지수 보통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주말 일교차 큰 초봄 날씨

구름 많고 해상엔 높은 물결

이번 주말 제주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초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 안팎으로 크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6~7℃, 낮 최고기온은 11~13℃로 예상된다. 14일은 아침 최저기온 5~6℃와 낮 최고기온 13~14℃, 15일은 아침 최저기온 6~7℃와 낮 최고기온 12~15℃가 되겠다.

14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겠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초속 12~1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1.0~2.5m의 높은 물결이 일겠다.

박소정기자



희뿌연 제주시가지 미세먼지 나뭇을 보인 12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서 바라본 제주시 신시가지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상처 치유하고 4·3 영령들의 넋 달래주길..."

제주4·3단체, 이 대통령에 추념식 참석 건의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2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4·3 추념식에 참여해 영령들을 위로하고 유족과 도민들의 마음과 함께 해주실 것을 건의한다"

고 밝혔다. 이어 "지난날 우리는 국민들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위헌적 계엄이라는 거대한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다"며 "계엄은 78년 전 제주가 겪었던 '국가권력의

폭력'이라는 참혹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 영령들의 넋을 달래는 대통령의 발걸음이 제주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여정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권력이 국민을 위협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으로 기초학력 향상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올해 또래 학습 공동체 등 지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또래 학습 공동체'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와 가정, 지역이 함께하는 독서인문교육도 시작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2일 올해 역점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은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에는 '하루공부 습관 만들기', '또래학습 공동체 운영' 등이 포함됐다. 하루공부 습관 만들기는 서귀포 지역 내 초·중학교(59곳) 학생 스스로가 학습 계획을 짜고 꾸준히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또래학습 공동체는 대동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 경험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시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한줄의 힘, 독서필사' 캠페인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초·중학생을 위한 '모두가 작가 프로젝트' 등 학교와 가정, 지역을 잇는 독서

인문교육도 선보인다.

시교육지원청은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올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서귀포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복합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지원,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운영 등도 이어간다.

김지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축
취 득
제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 박사

강상찬
(부: 故 강태일 · 모: 故 고정희)

오랜 시간 학문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값진 결실을 이루신 것을 가족 모두의 기쁨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다운 삼남매(이경·상만)

축
수 상
2026 혁신리더
적토마 대상

양철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
건입동통장협의회 회장

노인복지 및 지역사회공헌부문에서 2026 혁신리더 적토마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건입동통장협의회 회원 일동

축
취 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

변영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녕고등학교 제4회 동창회
회장 문석찬 외 동창 일동

축
수 상
이달의 새농민상

조정식, 오혜전 부부

자가 퇴비 활용 농가 경영비절감 등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경농업협동조합
임직원 일동